

Japan Weekly Digest

2012. 2. 4. ~ 2012. 2. 10

☐ 금주의 이슈

- 일본기업들의 M&A, 과거 최고수준
- 일본정부, TPP에서 전품목 관세 철폐키로

☐ 일본기업전략

- 일본·유럽·중국기업간 제휴, 중국에서 트럭 생산
- 민·관, 농업강화 펀드, 기코망·가고메 등 출자검토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중국의 수출관리강화에 대응, 희토류 수요 절감
- 쿨·저탄전략 추진사업 「TOKYO SPRING 실시」

☐ 보고서 리뷰

- 『무역적자 리스크 어떻게 볼 것인가 : 시뮬레이션에 의한 고찰』 미즈호 종합연구소, 2월4일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일본 기업들의 M&A, 과거 최고 수준

- 미국의 조사기업인 톰슨로이터에 의하면 일본기업의 M&A는 2011년에 건수로 643건, 금액으로 과거최고수준인 698억달러에 달함. 특히 해외기업 매수가 크게 증가
- 일본경제의 디플레, 유럽재정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M&A가 증가하는 이유
 -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일본시장의 축소 가능성 때문으로 성장성이 높은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경영자들의 판단임. 특히 식품관련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주로 내수형산업의 위기감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기린홀딩스의 경우 서플라이 체인 단절을 계기로 생산거점을 분산시키고 있음
 - 일본은행 통계에 의하면 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의 유보자금은 200조엔을 초과하여 일본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건실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짐. 리먼 쇼크나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피해가 큰 미국·유럽기업들에 비하여 일본 기업들은 유동성자금에 여유가 있는 편이며 엔고는 일본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
- 일본 기업들의 M&A의 성공률은 30%정도로 신흥국 등 새로운 시장에 단기간에 진출하여 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M&A를 수단으로 활용. 일본 시장의 성장전망이 불투명한 한, 일본 기업들의 M&A를 통한 해외진출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

□ 일본정부, TPP에서 전품목 관세 철폐키로

- 일본 정부는 TPP교섭참가를 위한 사전협약에서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를 검토할 것임을 표명. 농업분야를 배려하면서 모든 상품·서비스를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켜 9개 교섭상대국들과의 사전협의를 추진
- TPP교섭에서는 예외품목의 사전설정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우선은 전 품목을 교섭대상으로 해놓고, 쌀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예외 취급을 요구할 방침임
- 다만, 사전협약에서 미국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, 보험 등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TPP와 분리하여 대응할 방침. 미·일간 현안이 TPP관련국과의 다국간 교섭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「교섭참가 후 교섭 중」으로,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「2국간 차원에서 개별적인 대응」해 나가면서 시장개방을 TPP교섭참가 조건으로 하려는 미국정부에 대항하겠다는 의도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일본·유럽·중국기업간 제휴, 중국에서 트럭 생산

- 일본, 유럽, 중국의 상용차메이커들이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시장에서 제휴. 세계 제2위인 UD트럭스(구 닛산디젤공업)을 산하에 둔 스웨덴 볼보가 제3위인 중국 동풍기차 공장에서 생산 개시. 일본의 이스즈자동차, 독일의 다이믈러도 중국 현지 대기업들과 제휴
- 일본과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성장시장 확보를 서두르는 한편, 중국기업들은 일본과 유럽의 환경기술을 도입, 수출을 염두에 두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2011년 중국의 중대형 트럭판매대수는 130만대로 세계시장의 약 50%를 점하고 있음. 2006년에 비해 2.5배나 성장했으나 시장의 대부분은 동풍기차 및 제1기차 등 중국기업들이 장악, 승용차시장과는 달리 외국기업의 본격적인 진출은 부진한 편임
- UD는 볼보그룹의 엔진개발거점으로 UD의 환경기술 및 품질관리 노하우와 동풍의 저비용생산기술을 결합,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
- 동풍은 2003년에 닛산자동차와 합작기업을 설립, 그 산하에 승용차, 소형트럭, 중대형트럭회사를 설립. 닛산은 중국에서 중대형트럭사업의 지분을 동풍에 매각, 트럭사업에서 철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

□ 민·관 농업강화 펀드, 기코망·가고메 등 출자검토

- 일본정부는 투자펀드「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」설치법안을 각의에서 결정. 투자펀드는 농림어업종사자가 생산뿐 아니라 가공, 판매하는 6차산업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출자하는 지원기구로 지역 및 테마별로 서브펀드로 구성
- 투자대상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 등 파트너기업과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임. 농산물 가공기술 등의 노하우나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과 연대하는 경우, 농림어업종사자가 단독으로 다각화를 하는 것보다도 사업이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
- 펀드의 출자 하한은 없으며, 투자기간은 약 15년, 출자자의 자사주 구입 및 제3자에 대한 주식양도로 투자자금을 회수
- 일본 농림수산성은 법안 통과 후 기업들에 대한 타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나 이미 20개 이상의 지역금융기관 외에 기코망, 아사히맥주, 가고메 등이 기구나 서브펀드에 출자를 검토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중국의 수출관리 강화에 대응, 희토류 수요 감축

- 경산성은 중국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나 가전용 모터에 사용되는 지스프로시움의 국내수요를 앞으로 1~2년 내 30%이상 절감하는 대책을 수립
- TDK, 일본전산, 닛산자동차 등에 의한 공동생산체제로 전환을 정부가 지원하고, 폐기된 에어컨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미쯔비시머티리얼 등에 보조금을 지원
- 이번 대책은 중국의 수출제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으로 모터용 고성능자석에 사용되는 지스프로시움의 연간 국내수요를 600톤에서 1~2년내에 400톤 미만으로 감축하게 됨
- 구체적으로 자석을 생산하는 TDK 등 부소재메이커가 지스프로시움 사용량을 줄이는 모터 개발이나 양산화를 추진, 닛산 등은 신형모터를 최종제품에 사용

□ 쿨저팬전략 추진사업 「TOKYO SPRING 실시」

- 경산성은 창조적인 산업의 허브로서 동경을 세계에 알리고 소비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추진할 목적으로 동경의 봄을 테마로 한 플랫폼사업 「TOKYO SPRING」을 실시
- 동 사업은 신성장전략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쿨저팬(COOL JAPAN) 전략의 일환으로서, 일본의 창조적 산업 쇼케이스(showcase)라 할 수 있는 동경 브랜드를 재생시키기 위해 ▷상점가나 소비의 활성화, ▷지진재해부흥, ▷관광객 유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창조적인 동경(CREATIVE TOKYO) 구상에 따른 것임
 - 작년 11월 에다노 경산대신이 동경을 아시아의 창조적인 허브로 한다는 「CREATIVE TOKYO」 선언을 발표한 바 있음
- 또한, 본 사업을 통하여 일본이 자랑하는 모노즈쿠리나 창조적인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기업이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본을 재생시킨다는 것도 본 사업의 중요한 취지임
- 「CREATIVE TOKYO」의 연계사업은 ▷「TOKYO PREMIUM PROJECT」, ▷「GINZA FASHION WEEK」, ▷「롯데기 ART NIGHT」등이며 실시기간은 1월27일~4월1일

◆ 보고서 리뷰

『무역적자 리스크를 어떻게 볼 것인가 : 시뮬레이션에 의한 고찰』

미즈호 종합연구소, 2월4일

□ 무역수지 악화·적자의 요인

- 6.6조엔의 무역수지흑자를 냈던 2010년에 비해 2011년은 2.5조엔 적자 기록. 금액기준으로 수출이 1.8조엔 감소한 반면, 수입이 7.3조엔 증가하여 급격한 수입증가가 무역수지 악화의 원인
- 수출금액의 변동을 수량·가격 요인으로 분해해보면 수출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고, 수량감소가 수출금액 감소로 이어짐. 엔고에도 불구하고, 수출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계약통화표시 수출가격을 인상했던 데 기인. 그리고 계약통화표시 수출가격의 인상은 수출 수량의 감소를 초래
- 수입량은 대지진 직후 식료, 연료 등의 대체수입의 증가, 원전 정지의 영향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(LNG)의 증가. 수입가격 상승은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임
- 결국, 2011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31만에 적자로 반전된 것은 수입물가 상승, 수입량 증가, 수출량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, 그 중에서도 수입가격의 상승 영향이 가장 컸음

□ 무역수지 정착·경상수지 적자화 가능성

- 원유가격 상승과 함께 원전이 재가동되지 않고 부족한 전력을 전부 화력에 의존하는 경우 액화천연가스(LNG)의 수입증가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
- 소득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조기에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은 낮음. 그러나 최악의 경우 자원가격 상승, 엔고가 지속되는 경우 빠르면 2019년에 적자로 반전될 위험도 있음.

□ 시사점

- 원유 가격은 무역수지를 결정짓는 최대 요인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무역수지적자는 항구화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에너지 전략과 함께 풍력,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전환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

- 지진 후 상황변화를 고려한 성장전략·에너지정책의 개선,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에 더해, 최악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 발생이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정책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무역적자리스크를 어떻게 볼 것인가 : 시뮬레이션에 의한 고찰』 미즈호 종합연구소, 2월4일

*출처: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insight/jp120203.pdf>

- (2) 『무역역적자 확대와 재정적자 지속성을 둘러싼 논의』 모건스탠리, MUFG증권, 2월7일

*출처:http://www.morganstanleymufg.com/economicforum/jaew/docs/jaew_120203.pdf

- (3) 『경쟁정책에서 사용하는 경제분석 핸드북』, 일본공정거래위원회, 2월7일

*출처:<http://www.jftc.go.jp/cprc/reports/cr-0611.pdf>

- (4) 『일본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집적의 경제에 관한 실증분석』 전력중앙연구소, 2월9일

*출처:<http://cripi.denken.or.jp/jp/kenkikaku/report/detail/Y11004.html>

- (5) 『교역조건으로 보는 일본산업의 장래』 후지츠종합연구소, 2월10일

*출처:<http://jp.fujitsu.com/group/fri/column/opinion/201202/2012-2-4.html>

- (6) 『글로벌화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한일경제관계』 일본종합연구소, 2월10일

*출처: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im/pdf/5894.pdf>